

국내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의 내재적 특성 탐색

김 성 혜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본 연구의 목적은 여러 가지 환경적 제약과 요인으로 인해 개인의 재능이 사장되거나 억제될 가능성이 높은 국내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의 내재적 특성 탐색으로, 내재적 특성이란 음악영재성을 구성하는 3가지 구인, 음악성, 창의성, 동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먼저 2013년 7월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에서 주최한 영재발굴캠프 참가자 10명을 목적표집하였다. 그리고 이들과의 개별면담자료와 이들에 대한 전문가 수업관찰평가 결과를 교차 분석함으로써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의 내재적 특성을 현상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들 가운데 음악영재성이 여러 가지 구인들의 상보적 관계에서 개발되는 것을 인지하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이에 적합한 학습전략을 갖고 노력하여 잠재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동기 구인에서 잠재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상대적으로 창의성과 음악영재성의 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창의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 교육을 위한 제언으로 부모교육, 메타인지 및 창의성 신장, 학습동기와 자존감 같은 내적 영역요인 개선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 음악영재성의 내재적 특성, 질적 연구, 현상학적 연구

I. 서 론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이유는 동등한 능력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Reis & Callahan, 1989). 사회통합범주 영재는 많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환경적 여건으로 형성된 인지적, 정의적 특성으로 인해 영재판별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 영재교육프로그램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Stambaugh, 2007). 그 이유는 영재에게 잠재된 여러 가지 특성은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 부정적인 양상으로 발전, 때로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영재성은 특성상 적절한 시기에 계발되지 못하면 그 재능이 사장되기 때문에 사회통합범주 영재의 조기 발굴과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공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영재교육정책은 사회통합범주 영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전년도 발표된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는 “영재교육수혜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통합”을 추진전략으로 수립하고 영재교육에서 소외된 여러 유형의 사회통합범주 학생들을 영재교육에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교육부, 2013). 그 결과 음악영재교육에서도 선행학습이 부족한 사회통합범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전형, 쿼터제, 양적 도구 및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교육 수혜율을 높이려 애쓰고 있다. 분명히 영재교육 초기에 비해서 사회통합범주에 대한 교육지원이나 관심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 음악영재교육대상자 1,329명 중 사회통합범주의 비율이 1.8%이라는 2012년 조사결과는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교육의 양적 성과 또한 미흡함을 보여준다(김성혜, 2012).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는 사회통합범주 영재 중 상당수가 자신의 음악적 재능 발견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그 재능이 사장되고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어쨌든 정책의 적극적 지원과 함께 연구 분야에서도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를 찾기가 어려워 소수의 사례연구를 제외하고는 이와 관련된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해외사례나 수·과학 분야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의 잠재성이 발휘되지 못하는 교육적, 사회적 원인에 대한 성찰적 논의나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의 영재성 특성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결과를 실제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들에 대한 사례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발굴사례가 드물고 접근도 용이치 않은 상황이므로 사례를 토대로 연구를 수행하기가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본 집단 선정이 어렵다는 기존연구의 한계를 최소화하고 실제 사례에 근거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2013년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에서 실시한 영재발굴캠프에 참가한 사회통합범주 초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재발굴캠프 참가자들을 잠재성을 가진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로 정의하고 이들과의 개별면담과 이들에 대한 수업관찰평가를 토대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통합범주와 음악영재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발생하는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의 내재적 특성에 대한 탐색이다.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음악영재의 ‘내재적 특성’은 ‘음악성, 창의성, 동기’라는 3개의 구성요인(Renzulli, 1978)과 ‘학습동기, 태도, 자아의식’과 같은 내적 영역(Gagné, 2003)을 의미한다. ‘내재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것은 외재적 환경요인으로 인해 형성된 개인의 학습태도, 학습동기, 성격요인 등이 실제 이들의 잠재성 발현에 미치는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볼 수 있는 현상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가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를 선택한 것은 무엇보다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 사례가 거의 없어 양적연구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들이 자신이 재능이나 성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음악활동이나 학습에 임하는지를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추후 연구에서 측정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사전에 확

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을 토대로 한 복합적이고 상세한 이해를 위해서이다.

II. 이론적 배경

사회통합범주 혹은 사회적 배려대상, 사회취약계층, 소외계층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사회통합범주에 대한 개념이나 실제 대상 범위는 시대마다 사회마다 다르다. 교육적 차원에서 의미하는 사회통합범주는 외적인 요인(사회·경제적, 문화적, 지리적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축적되어 교육에서 별도의 지원과 혜택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통합범주 영재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중시하여 영재교육진흥법 2차 개정안 5조(2005)에 소외계층 영재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08-2012)에서부터 소외계층 영재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학생, 다문화가정의 학생, 지리적으로 영재교육 접근성이 제한된 도서·벽지의 학생, 장애가 있는 학생, 북한이탈주민, 특정 영역에서 수혜가 부진한 학생들로 영재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계층”이라 정의한다.

그러나 사회통합범주 유형별로 특성화된 인지적, 정의적 특성은 많은 차이가 있고 일반화하기 어렵다. 개인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형성된 사회통합범주의 개별적인 특성과 개인의 음악영재성의 상관관계를 일반화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사회통합범주의 범위는 교육기관이나 선정기준, 목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를 잠재된 음악적 재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외적 요인들로 인해 영재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잠재성 발현 기회가 제한된 대상이라고 정의한다. 영재성 개념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영재성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속성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외재적 환경특성이 개인의 성장에 개입하면서 재능과 영재성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Gagné, 2003; Tannenbaum, 1983). 영재성에 대한 이러한 주장들은 남다른 잠재성을 가져도 환경적 여건 때문에 영재판별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의 잠재성 발굴이 교육적, 사회적 차원에서 필요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영재성을 지능이 아닌 다른 속성으로 규명한 대표적인 학자인 Renzulli(1978)는 “세 고리 모형”을 통해 “평균 이상의 능력, 평균 이상의 창의성, 평균 이상의 과제집착력”을 영재성의 3구인으로 본다. 이후 Renzulli(1999)는 영재성 개념을 보다 확대하여 자아인식, 용기, 기질, 직관, 성취, 목적의식과 같은 ‘성격요인’과 ‘기회요인,’ 즉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교육수준, 흥미에 대한 자극, 정규교육, 역할모델’로 구성된 하운드투스체크 위에 세 고리 모형을 올려놓고, 개인의 성향이나 성격, 가정환경, 환경이 영재성 개발에 영향을 미침을 강조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Gagné(2003) 또한 “영재성 차별화 모형”을 제시하고 개인의 타고난 영재성(gifts)이 재능(talents)으로 체계적으로 개발되는 과정에는 ‘개인의 내적영역요인, 환경촉매요인, 이상의 요인들을 자극하거나 연계시켜주는 기회 요인’이 결합된다고 본다. Gagné의 모형은 영재성 개발에 촉매로 작용하는 외적요인과 환경의 영향을 중시하고 있어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를 위한 맞춤형, 차별화 교육과 지원이 필요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밖에 음악영재성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 또한 환경적 요인, 후천적으로 개발되는 음악영재성의 특성에 주목한다. 먼저 이미경 등(2006)은 예술영재성을 ‘내재적 요소’(기술, 예술적·인지적 능력, 창의성, 자기 동기)와 ‘외재적 요소’(환경)로 구분함으로 ‘환경’을 예술영재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강조한다. 이어서 원영실(2012)은 국내외 연구결과를 수렴하여 음악영재성을 높은 수준의 음악적 능력과 일반창의성과 음악창의성을 아우르는 창의적 능력, 음악에 대한 과제집착력을 포함한 강한 수준의 동기와 같은 심리학적 구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되고 결정된다고 정의한다. 또한 원영실 등(2011)은 Renzulli의 성격요인과 기회요인, 그리고 Gagné의 환경촉매요인을 지지하면서 음악영재의 내재적 특성은 부모나 학교를 포함한 환경 요인의 적극적인 지원과 음악영재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결정적 기회 요인에 의하여 극대화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편, 사회통합범주 예술 혹은 음악영재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여러 가지 환경요인들의 결핍이 서로 맞물리면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층위의 문제들이 사회통합범주의 영재성과 내적 동기를 저하시키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김성혜, 이경진, 2014). 선행연구에 따라 사회통합범주 영재의 내적영역의 특성을 나타내면, 외부적 환경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Boxtel & Mönks). 미적 경험이 부족하고, 또래집단이 자아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어, 또래집단의 기대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Wallace, 2000). 사회통합범주의 음악적 재능 발현이나 개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특성은 사회통합범주에게 미적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과정 개발이나 또래집단과의 협력학습 적용 같이 추후 이들을 위한 교육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들은 사회통합범주 영재에게 성격요인과 함께 기회요인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영재발굴캠프 지원자들 가운데 1차 선발된 사회통합범주 초등학생 3~6학년 19명을 음악적 잠재성을 가진 잠재영재로 간주하고, 그 가운데서 10명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는 목적표집(purposeful sampling)을 실시하였다. 목적표집은 연구자가 관심을 둔 특별한 사례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연구대상으로 삼는 표집방법이다. 따라서 연구자가 연구하려고 하는 연구문제를 가장 잘 대표하고 있는 사례가 표집으로 선정되고, 대개 연구의 목적에 가장 충실한 예를 담고 있는 사례를 찾아 연구하는 특성이 있다(김영천,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귀납적 목적표집을 위해 구인타당화를 마친 교사 및 부모 관찰정보지(원영실, 신명희, 2011) 결과를 토대로 발굴캠프 참가자 19명을 1차 선별하였다. 이어 캠프 참가자 19명 전원과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목적에 따라 초기 코딩하고 ‘음악영재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1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 10명이 발굴캠프

지원당시 제출한 부모관찰정보지의 내재적 특성과 외재적 환경특성의 평점은 각각 4.416점, 4.567점이고 두 영역의 평점은 4.492점이다. 교사관찰정보지에 따르면 음악성, 창의성, 동기의 평점은 각각 4.54점, 4.522점, 4.775점이고 내재적 특성의 평점은 4.612점이다. 본 연구에서 목적표집한 연구대상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 구분 표기 | 학년 | 사회통합범주 유형 | 연간가계 총수입 | 음악교육 시작시기 | 음악교육 수여기간 | 발굴캠프 지원분야 |
|----------|----|--------------|-------------|--------------|--------------|--------------|
| 학생A | 3 | 한부모/차상위 | 1~3천 | 초1~3 | 1~2년 | 성악 |
| 학생B | 5 | 다문화/기초 | 1천 미만 | 유치원 | 없음 | 성악 |
| 학생C | 4 | 다문화 | 5~8천 | 초1~3 | 2~3년 | 첼로 |
| 학생D | 6 | 차상위 | 1~3천 | 초1~3 | 5년 이상 | 바이올린 |
| 학생E | 6 | 기초 | 3~5천 | 유치원 | 5년 이상 | 바이올린 |
| 학생F | 6 | 차상위 | 1~3천 | 유치원 | 5년 이상 | 첼로 |
| 학생G | 3 | 국가유공자 | 5~8천 | 유치원 | 3년 이상 | 첼로 |
| 학생H | 6 | 차상위 | 1~3천 | 유치원 | 5년 이상 | 피아노 |
| 학생I | 5 | 기초 | 1천 미만 | 초4~6 | 1~2년 | 성악 |
| 학생J | 4 | 기초 | 1천 미만 | 초1~3 | 3년 이상 | 피아노 |

부모관찰정보지와 교사관찰정보지를 토대로 연구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회통합범주 유형은 사회경제적 약자층 6명(기초생활 3명, 차상위 3명), 한부모 가정자녀 1명, 다문화 2명, 국가유공자자녀 1명이었다. 연구대상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은, 1000만원 미만 3명,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 4명,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 1명, 50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 2명이었다. 10명의 연구대상 가운데 4명은 학령기 이전에 음악교육을 받기 시작하였고, 초등 1~3학년 사이가 5명, 1명은 초등 4학년 이후에 음악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또한 참가학생의 음악교육지속기간은 1년~2년 미만이 2명, 2년~3년 미만이 1명, 3년 이상인 학생 6명 중 4명은 5년 이상 음악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나머지 1명은 학교교육 외에 별도의 전문적인 음악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음악교육수여기간을 ‘없음’이라고 답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재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들에 대한 사례연구가 부족하고 이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별면담을 통해 이들이 음악적 재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들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발굴캠프에서 관찰된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의 음악영재성, 수업태도, 성격요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수업관찰평가(정량평가 및 서술평가)를 분석하고 현상학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어떤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적 의미(lived experience)를 기술하고(Creswell, 2010) 개인의 경험들을 보편적 본질에 대한 기술로 축소한다(Van Manen, 1997). 즉, 사회현상이 전개되는 원리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그것이 어려운 경우 실제 그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이 드러내는 본질을 이해함

으로써 사회현상의 전개원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사회통합범주와 음악영재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이 부딪히는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의 내재적 특성이라는 본질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발굴캠프에서 드러난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들의 음악적 재능에 대한 인식과 서술평가에 드러난 전문가들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의 재능에 대한 경험의 본질을 분석하는 접근방식을 취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주요자료는 두 가지 유형의 질적자료로, 연구대상 10명과의 개별면담과 이들의 수업을 관찰한 전문가 11명의 서술평가이다. 삼각화(triangulation), 즉 질적자료의 객관성 확보와 신뢰도 검증을 위해 질적자료와 관련된 양적자료를 수집, 질적자료와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Miles & Humberman, 1994). 양적자료들은 학생들이 작성한 설문형식의 자기평가지, 5점 척도의 정량화된 2종류의 전문가 수업관찰평가지(양적평가지도구, 질적평가지도구)가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자료인 연구대상 10명과의 개별면담에 앞서 설문형식의 자기평가지와 자기소개서를 수집하여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들이 ‘음악적 재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자신의 잠재성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나 도움이 되는 것들을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학생들과 면담자의 친밀감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보조강사들이 면담자로 투입되었고, 보조강사 1명이 4~5명의 학생들과 반구조화된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시간은 학생1명당 20분에서 40분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을 위해 보조강사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면담의 목적과 활용방법, 면담전략 및 태도, 그리고 연구대상(초등학생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의 특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일부 학생들과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면담자료 분석은 일반적인 질적자료 분석 과정에 따라 면담자료를 전사하였다. 그리고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성 관련 선행연구를 근거로 전사자료를 세그멘팅(segmenting)하며 초기 코딩작업을 실시했다(김영천, 2012). 그리고 초기 코딩한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토대로 심층코딩하면서 주제를 추출하고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심층면담의 녹음자료와 전사자료의 원본은 보관했다.

캠프기간동안 수업관찰을 통해 드러난 잠재성과 발전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전문가의 수업관찰평가에는 교사관찰정보지를 판별도구로 활용하였다. 전문가 질적평가에서는 5개의 평가항목을 5점 척도에 따라 평가하였다. 서술평가는 수업관찰을 통해서 드러난 음악적 잠재성, 발전가능성, 수업태도, 정서적 특성, 특이사항, 개선사항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의 내재적 특성 파악을 위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었다. 전문가의 양적, 질적, 서술 평가는 학생1명에 대해 주강사 4명과 보조강사 2명, 총 6명의 관찰자가 작성하여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의 내재적 특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관찰결과를 제시해주었다.

IV. 연구 결과

1. 양적자료 분석

본 연구의 주요자료인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와의 개별면담과 전문가 서술평가의 객관성

검증을 위해 수집한 양적자료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자기평가지

29개의 서술형 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평가지는 본 연구를 위해 목적표집한 사회통합법주 음악영재 10명이 자신의 재능과 환경특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이다. 자기평가지는 타당화를 마친 교사관찰정보지의 22개의 문항과 부모관찰정보지 문항 가운데 ‘부모의 음악에 대한 지지와 기대’에 대한 문항 5개와 ‘부모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다룬 2개의 문항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어린 연령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기 때문에 평가결과 자체의 신뢰도를 높게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질적자료의 신뢰도 검증과 비교를 위한 자료로 수집하였다. <표 2>는 사회통합법주 음악영재들의 자기평가지 응답결과이다.

<표 2> 사회통합법주 음악영재의 자기평가지 응답결과

| 학생 | 음악성 | 창의성 | 동기 | 평점 (내재적 특성) | 외재적 환경특성 | 평점 (내재적/외재적) |
|-----|-------|-------|-------|----------------|----------|-----------------|
| 학생A | 4.000 | 3.570 | 5.000 | 4.190 | 3.000 | 3.595 |
| 학생B | 2.800 | 3.430 | 4.380 | 3.537 | 3.000 | 3.269 |
| 학생C | 5.000 | 4.430 | 5.000 | 4.810 | 4.710 | 4.760 |
| 학생D | 3.800 | 3.710 | 4.250 | 3.920 | 3.000 | 3.460 |
| 학생E | 2.800 | 3.430 | 3.380 | 3.203 | 3.000 | 3.102 |
| 학생F | 3.600 | 4.140 | 4.630 | 4.123 | 3.000 | 3.562 |
| 학생G | 4.200 | 3.570 | 4.250 | 4.007 | 3.860 | 3.934 |
| 학생H | 3.600 | 3.570 | 4.750 | 3.973 | 3.000 | 3.487 |
| 학생I | 4.000 | 4.430 | 4.750 | 4.393 | 3.000 | 3.697 |
| 학생J | 4.400 | 4.140 | 4.880 | 4.473 | 3.860 | 4.167 |
| 평균 | 3.820 | 3.842 | 4.527 | 4.063 | 3.343 | 3.703 |

자기평가지에서 내재적 특성 전체 평점은 4.063점으로, 교사관찰정보지나 부모관찰정보지에 비해서는 평점이 낮았지만, 6명의 학생이 자신의 내재적 특성을 4점대 이상으로 평가하였다. 영재성 구인별로는 음악에 대한 동기가 다른 구인에 비해 높다고 답한 학생이 8명으로 가장 많아 사회통합법주 음악영재의 상당수가 자신의 음악에 대한 동기가 높다고 인식함을 보여주었다. 반면 자신에게 가장 부족한 구인으로는 음악성이 부족하다 4명, 창의성이 부족하다 6명으로 나타났다. 외재적 환경특성의 전체 평점은 3.343점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10명 모두 다 자신의 외재적 환경특성이 내재적 특성보다 낮다고 인식한 것이다. 9명이 외재적 환경특성을 4점 미만이라 인식하고 있었고, 그 중 7명은 3점이라 응답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통합법주 음악영재들이 환경적 요인으로 재능 발현에 한계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지지하고 있다.

외재적 환경특성과 내재적 특성의 평점은 3.703점으로 부모나 교사에 의한 관찰정보지에 비해서 전문가 수업관찰평가의 평점에 비교적 근접한 결과이다. 한편, 부모관찰정보지에서 8

명의 부모가 외제적 환경특성을 내제적 특성보다 높게 평가한 것과 상반되는 결과로, 음악 영재성 계발을 위한 교육적 환경이나 지원에 대해 부모와 자녀의 기대와 충족도가 서로 다름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들이 외부적 조건과 요인 때문에 자신의 재능이 충분히 계발되지 못한다고 인식함을 보여준다.

나. 전문가 수업관찰평가 - 양적평가 및 질적평가

전문가의 수업관찰에서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의 내제적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양적평가와 질적평가를 실시하였다. 잠재성 판별을 위해 투입된 전문가 중 첫 번째 유형은 전공실기지도를 담당한 전문가들로, 총 10시간 동안 1:1로 학생 개개인을 지도하면서 변화과정을 지켜보았다. 4분야의 전공실기지도를 담당한 전문가 4명은 미국과 유럽에서 수학하고 10~15년 정도의 실기지도경험이 있는 대학교수 혹은 강사이다. 두 번째 유형은 저학년과 고학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한 그룹수업 지도를 담당한 주강사 3명으로 사회통합범주 음악교육 경험이 10년 이상인 전문가들이다. 세 번째 유형은 음악전공 학사 및 석사로 모든 수업에 보조강사로 참가하여 학생들의 수행에서의 변화와 태도, 잠재성 등을 관찰하였고, 개별면담의 면담자였다. <표 3>은 전문가 양적평가 및 질적평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3> 전문가 양적평가 및 질적평가 결과

| 학생 | 전문가 양적평가 | | | | 전문가 질적평가 | 전문가평점 (양적/질적) |
|-----|----------|-------|-------|-------|----------|---------------|
| | 음악성 | 창의성 | 동기 | 평점 | | |
| 학생A | 3.600 | 3.284 | 3.563 | 3.482 | 3.475 | 3.479 |
| 학생B | 3.567 | 2.555 | 2.818 | 2.980 | 2.850 | 2.915 |
| 학생C | 2.767 | 2.771 | 2.752 | 2.763 | 2.650 | 2.707 |
| 학생D | 2.800 | 2.628 | 2.961 | 2.796 | 2.525 | 2.661 |
| 학생E | 3.067 | 3.148 | 3.625 | 3.280 | 3.250 | 3.265 |
| 학생F | 3.400 | 3.315 | 4.231 | 3.649 | 3.600 | 3.625 |
| 학생G | 3.767 | 3.086 | 3.835 | 3.563 | 3.600 | 3.582 |
| 학생H | 3.367 | 3.519 | 3.688 | 3.525 | 3.343 | 3.434 |
| 학생I | 3.300 | 3.445 | 3.603 | 3.449 | 3.275 | 3.362 |
| 학생J | 3.400 | 3.287 | 3.793 | 3.493 | 3.550 | 3.522 |
| 평균 | 3.304 | 3.104 | 3.487 | 3.298 | 3.212 | 3.255 |

전문가 양적평가도구로는 교사관찰정보지(원영실 외, 2011)를 활용하였다. 질적평가는 음악영재성에 관한 5개의 세부지표를 제시한 후,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전공실기수업과 그룹수업의 공통세부지표 3개는 ‘움지각 및 리듬지각, 재현 및 표현능력, 이해력’이다. 그 외에 전공실기수업에는 ‘초견 및 독보력, 테크닉’이, 그룹수업에는 ‘신체협응, 독창성’이 개별평가지표로 제시되었다. 서술평가에는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의 음악지각력, 이해력, 표현력, 수업태도와 참여도, 성격, 특이사항 등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여 학생 개인의 내제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가능한 많은 단서와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양적평가에서는 음악영재성의 3구인 중 7명이 동기에서, 2명이 음악성에서, 그리

고 1명이 창의성에서 다른 구인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음악영재성 구인별로 보았을 때, 대부분의 학생이 창의성 구인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음기각, 음기억, 음재현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신체협응, 즉흥연주, 창의적 표현 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창의성이 낮게 평가된 것은 주어진 잠재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심리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고, 캠프교사와 환경, 동료들과의 어울림이 어려워져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양적평가 및 질적평가에서 4점대 이상의 평점을 받은 학생은 한 명도 없었고, 양적평가와 질적평가 사이의 점수편차(평점 0.086점)도 적고 학생들 간의 순위에서도 큰 변동이 없어 전문가 평가의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었다. 2명을 제외하고는 전문가 양적평가 점수가 질적평가 점수보다 낮았다.

5점 척도의 정량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잠재성을 가진 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점수가 잠재성을 의미한다면,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 대다수가 잠재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평가방식이나 수업환경, 평가자와의 관계, 친밀도 등이 개개인의 음악적 활동이나 표현에 다면적으로 개입되어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현하지 못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자들이 어떻게 인식하였고, 이를 고려하여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의 내재적 특성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그리고 그 잠재성과 발전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서술평가 분석에서 제시될 것이다.

2. 질적자료 분석

학생들과의 개별면담과 전문가의 서술평가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의 내재적 특성을 현상학적 관점에서 드러내준다. 개별면담은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들이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음악적 재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코딩하였다. 전문가 서술평가는 음악성, 창의성, 동기, 학습태도, 성격요인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별면담과 서술평가를 교차 비교, 분석하여 학생 개개인의 내재적 특성과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다. 개별면담을 위한 사전 설문에서 자신의 음악적 성장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학생들 중 1명이 ‘연습’을, 3명이 ‘소질’을, 그리고 6명은 ‘부모’라고 답했고, 이 내용을 토대로 개별면담을 진행했다. 설문형식의 자기평가지 결과에서 내재적 특성의 점수가 높은 학생들은 개별면담에서도 자신이 재능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전문가 서술평가에서 자존감이 낮거나 소극적인 성향이 자주 언급된 학생들은 자기평가지의 내재적 특성 점수가 3점대로 낮게 나타났다.

전문가의 정량평가 점수는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들의 잠재성이 그들 자신, 부모, 교사가 인지하는 것만큼 높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서술평가에서 전문가들은 잠재성 판별이 어려웠던 이유와 상황을 개인의 내재적 특성으로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인지적, 정서적 특성들과 연관시킴으로써 음악영재성으로 예측되는 능력이나 특성을 언급하였다. 그 밖에 학습태도, 수업참여도, 성격이나 성향을 내재적 특성(음악성, 창의성, 동기 등)과 연계시킨 근거, 잠재성 판별 근거를 상세하게 제시해주었다. 질적자료 분석으로 드러난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의 내재적 특성을 학생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학생A

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음악교육(성악, 피아노, 바이올린, 난타 등)을 받고 있는 학생A는 자신에게 어느 정도 잠재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지역아동센터장이 학생A에게 재능이 있는 것 같으니 음악을 하라고 권유했기 때문이었다.

질문자: 본인이 소질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학생A: [여러 악기를 배우고 있는 학생A에게]¹⁾ 소질이 있는 것도 있고 소질이 없는 것도 있는데요. 일단 센터를 담당하시는 센터장님이 있잖아요. 그 분이 저에게는 노래 쪽으로 가라고 계속 그러셨거든요. 난타도 잘하고, 그냥 음악 쪽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랬는데요, 전체계 소질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학생A 스스로 어느 정도 잠재성이 있다고 인식한 것처럼 전문가들 또한 학생A의 잠재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특히 전공실기에서는 음감, 리듬감, 발성, 호흡, 음성, 체격에서 많은 잠재성을 가진 것으로 높이 평가되었다. 캠프 초반에는 수업참여도가 낮고 집중하지 못해 잠재된 능력이 있어 보이는 하나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는데 매우 소극적이라 판단되었다. 또한 음악성은 높으나 동기가 낮고, 학습태도와 교사, 동료와의 상호작용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모습을 나타냈다. 그렇지만 캠프 후반부로 갈수록 수업분위기와 환경, 수업내용에 익숙해지고, 교사와 동료와의 친밀성이 형성되어 수업에 집중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정적 어휘 사용과 공격성, 정서적인 불안정, 낮은 자존감 등이 누적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다시 말해 부정적인 학습태도와 낮은 학습동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적 영역에 대한 개선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음악에 대한 이해가 우수하고 감정 표현이 풍부하다. 리듬, 음정 등의 기본기가 있다. 성악을 전공하기에 최적의 체격 조건과 기본기, 좋은 발성과 발음을 갖추고 있다. 이번 캠프에서 만난 학생들 중 음악을 꼭 하였으면 하는 학생이다. 성악을 또는 뮤지컬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지녔다고 평가됨.
- 캠프 첫 날에는 무표정 혹은 쩡그린 얼굴을 하고 있어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생각 외로 수업태도가 좋은 편이었고 수업이 진행될수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인지능력은 있으나 교사가 제시하는 음높이대로 부르는 것이 서투르다고 생각했다. 후에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서 그 생각이 달라졌고 단지 수업시간에 귀찮아서 대충 불렀다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 소극적인 모습으로 성의 없는 소리를 표현한다. 캠프에 참가한 다른 편부모 가정의 자

1) 개별면담의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일부 단어를 추가하거나 수정한 경우는 []로 표시하였다. ‘중략’은 앞에 언급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한 경우이다. 비문이나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많지만 연구대상의 특성(사회통합범주, 초등학생, 음악영재 등)을 보여주기 위해 가능한 그대로 제시하였다.

녀들에게 자주 발견된 것처럼 부정적 태도와 언어가 학습의 방해요소로 작용한다. 의욕도 저하되어 있으며 캠프에 참여한 동기가 불확실해 보이나, 편부모 가정의 자녀들끼리 수업을 했다면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잠재성을 보여주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 좀 더 긴 기간 동안 관찰했다면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학생이다.

나. 학생B

학생B는 부모가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인정해주고 가족오락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수상함으로써 자신에게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학생B: 소질부터 있어야 나중에 연습하면은 좀 더 바로 바로 실력이 늘 수 있지 않나요?

질문자: 아 .. 그래? OO은 소질이 있는 거 같애?

학생B: 저요? (질문자: 응.) 엄마가 있대요.

질문자: 엄마가 있대? (학생B: 네.) 그래서 있는 거 같애? 스스로?

학생B: 있는 거 같애요.

질문자: [가족노래프로그램에] 나갈 때 좋아?

학생B: 뿌듯하다가 약간 좀 자만심이 생기고요... 엄마가 뭘 사준대 해서요, 좋아요.

학생B는 스스로 재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재능 계발을 위한 어떠한 교육도 받지 못했다. 비록 별도의 음악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음감과 리듬감이 뛰어나고 정확한 재현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에 적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서인지, 혹은 자신의 감정이나 재능을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여러 차시의 수업에도 잠재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았다. 학생B의 소극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자아의식, 타인과 소통하는데 서툰 성향 등이 학생B의 잠재성 발현을 억제한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음악영재성이 계발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여 수업참여와 학습동기가 낮았다. 그 외에 사회경제적 약자층,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는 자의식이 강하고 자기효능감이 낮아 노래하는 것을 즐기지 못했다. 또한 좋은 재능과 자질에도 노래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과 공감하고 소통하는데 서툴렀다. 이는 학생B의 내재된 잠재성과 별개로 재능발현을 억제하는 외재적 환경특성이 내면화되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학생B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음악교육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개인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 같은 심리·정서적 지원과 다양한 음악체험(공연, 놀이 등) 기회 제공과 같은 문화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언을 하는 이유는, 면담 사전질문에서 학생B가 자신의 음악적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된 것을 ‘소질’로, 그리고 가장 적게 도움이 된 것으로 ‘부모’를 선택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 기본기가 충실하다. 선율에 대한 기억력이 높고 정확한 음 표현이 가능함.
- 동작으로 음악을 표현하고 그것을 악기연주로 다시 재현하는데 있어 여유롭게 악기를 연주하고 상대 박자를 들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연주하는 모습을 보임. 정서적으로 타인과 어우러짐을 경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음악적 능력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됨.
- 표현하는 것이 소극적이다. 수업참여에 소극적,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인 편이다. 잠재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외재적 환경 요인으로 내면화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과 적절한 교육이 투입된다면 음악적 능력의 발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 교사의 어떤 권유에도 음악적인 움직임이나 표현을 나타내지 않음. 외모(얼굴, 키 등)에 대한 불만이 많아 자신감이 없음. 엄마가 일본사람인 걸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이름이 이상해서 싫다고 함. 정서적으로 타인과 어우러짐을 경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개인이 갖고 있는 음악적 능력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기대됨.

다. 학생C

학생C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연습을 하지 않아도 재능이 있으면 음악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질문자: OO는 음악적 소질이 되게 많은 거 같아? 스스로 생각할 때?

학생C: 기타 칠 때. [다른 애들보다] 좀 더 진도가 빨리 나갔어요.

질문자: 그럼 [음악적 성장에 도움을 준 것 중에 가장] 마지막이 연습이네.

학생C: 네. 연습을 별로 안 해도 소질만 있으면...

질문자: 근데 소질이 있는 사람이 연습을 하면 더 훌륭해진다는 생각은 해봤어?

학생C: ... 아마도... 그런 거 같아요.

전문가 의견은 학생C의 잠재성 판별이 쉽지 않다는 내용이 많았다. 그 이유는 학생C의 수업집중도가 낮고 초등 저학년 남학생이라는 연령의 특성상 또래 남학생들과 장난치는데 빠져 교사의 지시와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이었다. 대체적으로 평이한 수준의 음악적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 학생C는 타고난 능력이 음악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습과 훈련의 중요성과 동기가 음악영재성의 구인이라는 것을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다. 연령의 특성상 또래들과 어울리느라 수업에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판별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인지, 학생C의 다소 편협한 음악영재성과 자신의 재능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이 불성실한 학습태도와 무관심, 낮은 수업참여의 원인인지는 장기간의 관찰을 통해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음악용어나 음악활동에 대한 상세한 지시를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과 어린 연령이란 것을 감안하여 음악영재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학습과 훈련의 중요성을 인지시킨다면 잠재성 발현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 인지 및 감각 능력이 평균 이상의 수준인 것 같으나 상당히 산만하고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안타까웠다.
- 음감이나 리듬감, 협응 능력에서 평균 수준으로 보이나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낮아 관별이 여의치 않음.
-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표정의 변화도 거의 없으며 교사의 지시도 거의 무시함.
- 집중력이 짧고, 음악적 설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고 걷도는 모습. 객관적 평가가 어려움. 전반적으로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음.
- 수업 초반에는 여러 악기나 음악 등에 관심을 보이며 어느 정도 참여하는 모습이나 긴 수업시간에 지치는 듯 집중도, 참여에 있어 점점 힘들어하는 모습이였다.

라. 학생D

매일 7시간 정도 연습한다고 답한 학생D는 잠재된 재능이 많지 않아도 많은 노력이 더해지면 재능이 계발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개별면담 중 부모를 의식하는 내용이 많았던 것으로 짐작할 때, 학생D의 음악영재성 개념이나 자신의 잠재성에 대한 인식 형성에 부모의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학생D: 음... 엄마가 10시간 정도 하렸는데, 8시간, 7시간 밖에 못했어요. 주중에 매일 7시간 연습하면... 음... 주말에 엄마가 놀게 해 주니까.

학생D가 판단한 것처럼 전문가들 역시 학생D의 잠재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재능이 부족하지만 연습을 통해 재능이 계발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수업참여도와 집중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제로 수업관찰결과 학습동기가 낮고 참여도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감과 테크닉, 음악적 표현이나 감성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기초적인 리듬과 화성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느끼고 표현하는 것도 서툴렀다. 상당 시간을 연습에 할애하는 것 같으나 연습을 통해 자신에게 부족한 기교나 표현, 암보, 독보능력 향상을 위한 목표의식과 전략이 없고, 부모의 지시에 따라 연습량을 채우는 경향을 보여, 일정 수준의 실기능력에서도 많이 부족하였다. 학습동기와 자기주도학습능력, 자기목표의식, 결정능력의 부족이나 체계적인 교육부재가 잠재성 발현의 장애요인이라고 하기에는 음악성, 창의성, 동기 모든 영역에서 잠재성이 떨어진다.

- 수업시간에 산만한 편임. 나이에 비해 테크닉이 매우 부족함. 테크닉을 익히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을 더 잘 표현할 것임. 음악적인 감각을 더 발달시키면 좋겠음.
- 박의 변화에 대한 민감함이 떨어지고 짧은 시간에 이해를 이끌어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하고자 하는 의욕은 보이나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여 표현[예] 제약을 받음.
- 창의적 표현력과 독창성이 부족하다. 리듬감도 부족하다. 수업 보다는 사춘기라 외모나 친구교제에 관심이 많고 자신과 친한 친구와 수업 중 다른 팀이 된다거나 하면 싫어한다.

- 자신이 관심 있는 활동에서만 집중해서 참여하고 다른 활동에 있어서는 수동적으로 (약간 억지로) 참여한다. 수업에서 비슷한 활동이 반복되면 지루해하는 표정이었다. 호감 있는 활동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표정이 달라진다.

마. 학생E

학생E는 본인에게 잠재된 재능이 많지는 않지만 노력하면 재능은 개발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질문자: 너는 소질이 없다고 생각해? 바이올린 그니깐 음악에 대한 소질이나 바이올린에 [대한] 소질이나?

학생E: 그렇게 많이 있는 거 같진 않아요. 노력하면 되잖아요.

질문자: 노력하면 되긴 하지.

학생E: 맨날 연습하면 되죠.

학생E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들 역시 학생E의 음악적 재능을 평이한 수준으로 보았다. 음악영재성 구인 중에서 음악성이나 창의성에는 특별히 두드러지는 특징이 관찰되지 않았고, 수업에 집중하고 음악활동 자체를 즐기는 편이고 음악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은 많은 편이었으나 음악에 대한 동기나 창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어떠한 특징들도 관찰되지 않았다.

- 체구에 비해서 악기가 너무 작음. 음악적인 표현력과 테크닉이 매우 미흡함.
- 음악 [지각력,] 표현력, 재현력 모두 아주 떨어지거나 높은 점 없이 평이한 편이었다.
- 들려주었던 감상곡 안의 두 가지 리듬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워하는 듯 보였으나 혼자서 끝까지 연습하며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후의 신체 협응에 어려움이 없어 보임.
-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원하는 것에 대해 열심히 표현해보고자 하는 적극성이 보인다.
- 교사에게 잘 집중하고 음악을 듣고 표현하는데 잘 집중하고, 곧 몰입되는 모습을 보임. 감정적으로 기복이 없어 어떤 활동을 실행하고, 함께 만들어 가고 연습하고 길게 이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어보였으며 음악 활동을 이해함에 있어 즐거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학생임.

바. 학생F

학생F는 자신의 잠재성이 부족하고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에서 수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보다 몇 배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채워나가는 목표의식을 갖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다. 비올라를 전공하고 있지만 평소 관심이 있던 첼로를 사사하고 싶은 '욕심'이 발굴캠프 지원동기라고 밝힌 학생F는 3일 만에 짧은 곡을 완성하여 연주함으로 남다른 과제집착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학생F: 그니깐, 내가 음악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좋아하고 좋아하면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략)

질문자: 으음.. 그럼 연습할 때 막 힘들고 그렇진 않아?

학생F: 힘들죠, 안되면 짜증도 나고. (중략) 그게 저는 막 그게 막 뛰어난 애들 그냥 음악 소리만 들어도 그런 쪽은 아니에요. 제가 진짜 그래서 남들보다 두 세배 더 열심히 하고 공부도 학원도 안다니니깐 더 열심히 집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요.

학생F 자신이 인식하는 것처럼 음악적 표현이나 인지 등에서 잠재성이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평가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모든 평가자들이 매우 높은 수준의 성취동기와 과제집착력을 갖고 있어, 수업참여도와 몰입이 좋다는 언급했다. 그런데 높은 과제집착력이 과연 잠재 영재로서의 특성으로 관찰된 것인지, 아니면 연령에 따른 일반적인 현상에 의해 관찰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지역과학영재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F의 남달리 높은 과제집착력이 음악영역이 아닌 다른 분야 영재성에서 기인한 특성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F의 잠재성 판별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수업과 장기간의 관찰이 요청된다.

- 초견 및 독보력 뿐 아니라 음지각과 리듬지각 그리고 기억력도 우수하고 첼로연주에 매우 좋은 체[격]조건을 갖고 있다.
- 주어진 선율에 대한 기억력이 짧으나 반복된 연습 후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곡의 화성적 뼈대에 대한 설명에 빠른 이해를 보임.
- 그룹 내 학생들과 매우 잘 어울리는 모습이고 리더십이 있어 수업태도, 참여에 있어서는 적극적이며 활동적임. 개인적인 열심과 집중력에 비해 기본적인 음악적 능력(리듬감, 선율...)이 조금 부족한 듯 보임.
- 음악 학습에 대한 태도가 잘 훈련되어 있으며 오랜 시간 연습을 지속하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데 대한 즐거움을 나타냄. 다만 기초적인 리듬, 선율, 화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습과 훈련이 필요해 보임. 리듬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고정박과 분할 박이 모두 불안정. 선율의 고정에 대한 예민함도 조금 부족해 보임.

사. 학생G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개별면담에서 많은 이야기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학생G는 정확한 음을 내는 것이 어려운 첼로의 음을 정확하게 연주할 수 있다는데 자신감을 나타내며 본인에게 소질이 있는 것 같다고 답하였다.

질문자: 그러면 OO은 첼로를 하는데 소질을 아주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호호호.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돼.

학생G: 그런 거 같아요.

질문자: 어떤 면에서?

학생G: 음을 잘 내는 거 같아요.

학생G는 다성리듬을 듣고 기본박과 다양한 층위의 리듬을 정확히 인지하고 각기 다르게 표현해낸 것으로 보아 음과 리듬 감각이 뛰어나고, 긴 악곡의 프레이즈와 구조를 파악하여 동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체협응능력이 좋은 것으로 보인다. 조용한 성격이라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창의성 또한 높은 편이다. 전문가 대부분이 학생G의 음악적 잠재성이 높고, 학습동기와 목표의식이 분명하다고 평가하였다. 개인전공실기와 그룹수업에서 요구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음악성, 동기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 초견 및 독보력이 우수한 편으로 새로운 곡을 3일 만에 연주해냈으며 곡에 대한 이해력이나 기억력 또한 우수하다. 음지각이 우수하여 정확한 음정을 갖고 있다. 아직 나이 어리[나] 침착한 성격으로 적극적인 표현은 좀 부족해 보인다. 그러나 차분하고 성숙하게 정확한 연주를 하는 잠재력이 많은 학생이라 할 수 있다.
- 캠프 초반에 배가 많이 아파 계속 쩡그린 표정과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지만 수업에 빠지기를 원치 않았다. 배가 아프다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고 힘들지만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걸 보고 조용한 성격이지만 캠프 지원동기도 분명하고 성취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감상곡 안의 두 가지 리듬을 구분하여 듣고 노래할 수 있었고 동작으로 두 리듬을 익힌 후 함께하는 시간에도 자신의 리듬에 흔들림 없는 모습. 동작으로 학습한 부분을 악기로 연결하여 연주하는 모습에도 자신감이 나타남. 화성에 대한 설명을 집중하여 듣고, 함께 소리 만들기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임.
- 음악적 동작에 있어 특히 즐거움을 표현하며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동작이 커지고, 해석하는 프레이즈의 길이가 길어져도 끝까지 듣고 몸으로 표현함에 자신감과 즐거움이 함께 나타남.

아. 학생H

학생H는 자신이 학교 대표로 선정되어 대회에 참가한 것을 주변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스스로도 음악적 재능이 있다고 인식했다. 자신은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많은 시간동안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음악적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학생H: 이번에 학교 대표로 경기도 대회 나갔었어요.

질문자: 그래? (중략) 그러면 너보다 잘 치는 애도 있는 것 같아? 너보다 소질 있는 애들도 봤어? 또래에서?

학생H: 아직은 못 본 거 같은데요.

질문자: 응.. 근데 그.. [자신의] 음악 성장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 제일 끝까지 연습이잖아.

학생H: 네. (웃음). (중략) [연습] 별로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학생H의 자기평가와 유사하게 전문가들 또한 학생H의 음지각 능력이 뛰어나고, 듣고 모방하는데 익숙해 즉흥연주에서 어느 정도 탁월성이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전문가 평가에 의하면, 클래식 음악연주를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독보와 암보 능력이 개발되어야 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연습, 자기주도학습능력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주보다 창작 적성이 높다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전공탐색과 선택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악보를 보지 않고 대충 듣고 선율과 화성의 윤곽을 연주하는 것이 창작이나 변주에 대한 적성인지, 아니면 동기의 부족인지는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 주어진 과제곡을 완성하기 위한 목표의식이나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많은 레퍼토리를 학습했음에도 모든 곡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기교와 표현에서도 미흡한 편이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편이다. 음악성, 창의성에서는 잠재성이 있으나 과제집착력을 높이기 위한 학습태도와 전략, 훈련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천이 요구된다.

- 악보를 보고 음악을 이해하기보다는 듣고 모방하고 작곡 및 편곡하는 것을 편안해한다. 어려운 음악을 정확하게 연주하는 것을 불편해한다. 화성진행과 리듬진행의 규칙에 대한 이해는 아주 뛰어나다. 여러 가지 다양한 연주기법에 관심이 많고, 빨리빨리 표현해 낸다.
- 연주할 수 있는 곡의 수준도 높고 오랫동안 배운 것 같다. 악곡의 전체에 대한 이해가 빠르다. 피아노를 좋아하고 피아노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다. 작곡가, 악기, 악곡, 화성 등에 관심이 많고 지식도 많다.
- 아쉬운 점은 레슨을 힘들어한다. 집중도에 있어서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부족한 모습이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만 다소 수동적인 모습이 종종 보인다.
- 음악을 들을 때 새로운 음이나 악구를 추가하곤 한다.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나 무난하게 즉흥연주도 곧잘 한다. 음악을 듣고 느낀 바대로 표현하는데 자유로우며 음악을 들을 때 집중도가 높고 의사 표현을 하는데 있어 자신감 있으며 즐거움을 표현.
- 타인과 관계없이 자신이 느낀 대로 표현하는데 자유로운 모습을 보임.
- 눈이 마주치면 피하며 수동적인 모습이 종종 보인다.

자. 학생I

학생I는 태어날 때부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대부분 비슷한 정도의 음악적 잠재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에게 음악적 재능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에게 어느 정도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재능을 인정받고 싶은 내적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 저는 그냥 봤을 때, 다 사람들 다 똑같이 보여요. 다 소질 없어 보여요. (중략) 맨날 제가 선생님 저 소질이 없나요 물어보면요...

질문자: 응, 그런 거 여쭙 봐?

학생: 태어나면, 선생님이 뭐 가끔씩 그런 거 말씀하세요. 응, 태어나면, 응, 뭐지 다 소질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막 이 말을 하니깐... 응, 뭐 믿게 되더라구요.

스스로 인식하는 것과 같이 학생I는 음악영재성의 어느 특정 영역에서 특출난 잠재성이 발현되지는 않았으나 음악에 대한 흥미가 높고, 음악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음악을 즐길 줄 안다. 한편, 음악을 즐기고 감상시 몰입하는 것으로 보아 동기가 낮아 보이지는 않는다. 초등 5학년임에도 수업 후반에 갈수록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을 단순히 음악적성이 낮고 동기가 부족하다고 단정하기에는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사회통합범주 영재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학습태도와 전략의 부족이 원인일 수도 있고, 음악교육을 초등 4학년이라는 늦은 나이에 시작했기 때문에 수업시간, 내용, 수준, 난이도 등이 맞지 않아서 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음악을 즐긴다. 성격이 좋다. 성악 뿐 아니라 음악에 대한 전체적 이해가 우수하다.
- 자신만의 즉흥적 Melody 만들기에서는 나름 독특한 idea를 표현하려 노력하는 모습이다.
- 수업에 대한 참여도가 높고, 음악을 들려줄 때 그 몰입도가 높아 그 느끼는 바를 타인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전달되며 음악적인 즐거움을 알고 거기에 동참하려는 의욕을 보임. 선율에 대한 민감성이 그룹 중 가장 높은 경향을 보임.
- 수업 참여도가 좋은 편이지만 수업시간에 포레 친구들과 장난을 많이 쳤다.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모든 수업의 전반부에는 집중을 잘 하지만 후반부에는 집중력이 흐트러졌다.

차. 학생J

부모에 이어 연습이 자신의 음악적 성장에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생J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이 아주 뛰어나지는 않지만 연습에 몰입하고 집중하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좋은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의 비일관된 양육방식과 음악교육에 대한 지원, 저녁 연습을 금하는 주변환경으로 인해 충분히 연습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학생J는 타고난 재능 외에 이를 뒷받침해주는 주변환경이나 인적요인, 그리고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질문자: OO의 소질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

학생J: 소질이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 번 하면 계속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아요.

학생J는 잠재성이 부족해도 꾸준한 연습을 통해 실력이 향상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지 수업관찰결과 성취동기와 학습동기가 높고, 수업에 대한 집중도와 성실도가 높다는

평을 받았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지만 모든 활동에 호기심과 흥미를 갖고 임하는 모습에서 높은 동기가 있음 또한 드러났다. 본인의 생각과 달리 음감과 리듬감 같은 음악성 영역에서 높은 잠재성을 보였고, 인지능력과 이해력이 매우 높았는데,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들 다수와 마찬가지로 창의성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테크닉, 운지법, 독보력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은 학습동기, 학습태도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이 지속 적을 계발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 리듬과 음정감각이 상당히 우수하고 연주에의 몰입도, 성취도, 그리고 근성도 있어 보인다. 노래를 좋아하고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려는 욕구도 높다. 음지각 및 리듬지각은 우수하다. 악보도 제법 잘 읽긴 하지만 아직 다양한 종류의 피아노 음악을 접해보지는 않은 듯하다.
- 아직 표현도구의 개발은 덜 되어 있지만 음악을 표현하려는 욕구는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이해도도 높다.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잠재된 음악적 소질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 현재 본인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면 무척 효과적일 듯하다.
- 전 영역에서 고르게 우수하고, 인지능력과 이해력이 높은 편이다. 눈에 띄게 독창적이거나 적극적으로지는 않지만 수업태도가 매우 성실하고 집중도가 높으며, 음과 리듬에 대한 인지능력과 표현이 우수하다.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지속적으로 투입된다면 영재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보인다.
- 호기심, 수업참여도, 음악에 대한 몰입도가 모두 높아서 짧은 시간 학습한 내용의 결과 수준도 높으며 의욕도 넘침.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재능발굴과 계발 기회를 갖기 힘든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의 내재적 특성을 탐색하였다. 전문가 평가와 개별면담 내용을 교차 분석한 결과, 음악영재성에 대한 개념, 자신의 잠재성 여부에 대한 인식이 수업에 임하는 태도나 흥미와 무관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과 같이 개별면담과 서술평가에서 음악영재성의 내재적 특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학생들이 평소 음악영재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음악영재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학습태도와 동기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즉, 개인이 갖고 있는 음악영재성 개념은 자신과 타인의 음악적 재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교수학습과 훈련의 필요와 기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 서술평가와 개별면담의 교차 분석에서 드러난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의 내재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음악영재성 3구인의 상보적 관계를 파악하고 음악영재성의 3구인에 대해서 비교적

올바른 자기 나름의 개념과 인식이 형성되어있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학습태도도 좋고, 학습동기와 성취동기가 높아 잠재성이 높은 편이었다. 이는 음악영재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형성되면 자신의 잠재성 계발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고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실천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먼저 재능이 있지만 노력이 더해져야 재능이 계발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수업참여도와 집중도가 높았고, 전공실기와 그룹수업에서 흥미를 갖고 성실히 임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스스로 재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이 잠재성이 있다고 평가된 것은 이들이 음악성과 동기의 상보적 관계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음악영재성에 대해 다소 편협한 인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음악영재성 3구인의 상관성을 잘못 파악하고 있어, 자신의 재능, 그리고 재능 계발을 위한 학습전략이나 태도에서 개선이 요구됐다. 예를 들어, ‘재능이 있으면 연습을 안 해도 된다.’ 혹은 ‘특별히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없으니 무조건 많이 연습하고 노력하면 재능이 계발된다.’와 같이 음악성 혹은 동기와 같이 특정 구인만을 음악영재성으로 간주하는 학생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잠재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음악성과 동기에 비해서 창의성 영역에서 높은 잠재성이 발견된 학생이 없었다. 음감·리듬감, 음악지각능력, 청각적 민감성, 과제집착력이나 동기가 높다는 내용이 많았던 반면, 음악적 표현, 감상, 동작 창안 등에서 창의성이 언급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학생들 스스로도 그리고 교사와 부모 역시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의 창의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지 않았다. 발굴캠프 지원시 제출된 부모관찰정보지에서는 동기가 높은 학생이 6명, 음악성은 3명, 창의성은 1명이었다. 교사관찰정보지에서도 음악영재성의 3구인 중 동기가 높은 것으로 인식된 학생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창의성이 3구인 중 가장 높다고 보고된 학생은 1명에 불과했다. 그런 점에서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들과 가족, 교사들 모두 음악창의성 혹은 일반창의성이 음악영재성의 한 구인으로서 실제 재능 발현과 계발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큰 틀에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창의성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과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의 동기가 음악성이나 창의성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잠재성이 높은 것으로 판별된 학생들은 대개 음악성에서 잠재성이 발견되었고 또한 학습동기와 과제집착력이 높았다. 그러나 스스로 동기가 높다고 인식하는 학생들 가운데는 성격요인이나 수업태도 등으로 인해 학습동기나 과제집착력이 낮다고 평가된 학생들도 있었다. 어쨌든 적은 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의 내재적 특성에서 동기가 다른 구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창의성이 낮다는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이는 보다 많은 사례와 다양한 연구방법을 토대로 한 후속연구를 통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의 상당수가 학습전략이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자아의식이 개인의 잠재성 발현, 그리고 음악학습이나 음악적 표현과 소통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어느 선 이상에서는 능력의 많고 적음보다는 성격과 동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Winner, 1996)는 주장은 왜 사회통합범주 영재의 음악적 잠재성 발현과 계발에서 성격과 동기가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를 개선하

기 위한 교육적 장치와 지원, 관심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의 잠재성 발굴과 계발을 위한 제언의 방향을 큰 틀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의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는 대부분 부모가 갖고 있는 음악영재성 개념을 자기화하고 있다. 특히 부모가 최초의 판별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조기발견이 중요한 음악영재성의 조속성을 고려할 때, 부모가 음악영재성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 발굴의 첫 걸음이 된다. 이재호 등(2011)이 부모가 관찰한 영재행동특성을 선발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는 것처럼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판별이 부모로부터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영재들의 영재성이 조기에 파악되어 그들의 잠재성이 충분히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자녀의 성장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부모가 음악영재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당한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회성 특강 같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교육이 아니라 영재 판별 요인, 교육 프로그램 요인, 교육 환경 요인까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부모교육이 필요하다(정덕호 외, 2014).

둘째, 사회통합범주 선발에서 이들의 내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불이익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범주 선발모형 개발과 보급, 관련 연수나 컨설팅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음악영재 선발을 위해 교사 관찰정보지나 체크리스트들이 개발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의 잠재성 판별을 위한 관찰정보지로서의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들의 내재적, 외재적 환경특성을 고려하고, 유형별, 발달단계별 차이점을 고려한 문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캠프나 단기 아카데미 형태의 사회통합범주 발굴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연주동영상이나 음원을 통해 실기능력을 보고 실기능력을 토대로 1차 선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기관의 목적에 따라 선발의 자율권이 주어지기는 하나 사회통합범주에 보다 적합한 양적도구나 표준화 검사 등을 병행하는 것이 잠재된 영재가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어렵게 영재프로그램에 진입한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다음 부분들이 보완되도록 하는 세심한 지도와 관심이 필요하다. 발굴캠프에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채우기 위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한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잠재성이 발현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자신의 현재 능력과 표현의 한계를 깨닫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식을 찾는 능력, 즉 메타인지가 개인의 재능 개발과 적극적인 학습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이경진, 2013). 사회통합범주의 잠재성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메타인지의 중요성, 즉 자기성찰에서 내적 대화형식의 중요성을 강조해 이를 위한 학습습관을 갖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활동지나 일지에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를 위해 어떻게 하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은 결국 탐색능력 뿐 아니라 메타인지능력을 개발하여 스스로 학습하고 탐구하도록 한다. 따라서 메타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재능 뿐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타자화시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찰’을 유도

하여 자아의식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넷째,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견인하기 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가 음악성과 동기에 비해서 창의성에서 잠재성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독창적인 표현과 자신의 느낌을 자신만의 소리로 표현하고 자신이 원하는 소리를 찾으려는 탐구와 문제해결능력은 음악영재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들이 음악에서 혹은 일상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 가슴과 몸으로 느끼고 체득한 것을 표현하는 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소극적인 성격과 부정적인 자아의식은 영재성 발현과 개발을 저해하는 원인이란 점에서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리더십 교육과 인성프로그램, 상담 등이 정례화되어야 한다. 김은아 등(2007)에 의하면, 학습자의 내적동기와 자기효능감, 창의성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학습동기의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사회통합범주 학생들의 창의성, 자기효능감,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인성교육이 단지 사회통합범주의 인성과 사회성 함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창의성과 학습동기를 높여 재능 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필요함을 보여준다.

최근 몇 년 사이 문화 복지인식이 개선되면서 교육과 복지 차원에서 사회통합범주의 예술향유를 위한 다양한 음악교육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회통합범주 예술향유 및 인성 함양을 위한 오케스트라 사업을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 선발의 통로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는 사회통합범주라는 특성과 음악영재성이라는 다른 특성이 맞부딪히면서 개별적이고 독특한 문제와 요구를 갖고 있다. 또한 ‘자신의 수준이나 흥미에 맞지 않으면 잠재성을 발현하지 않는’ 음악영재성의 속성과 ‘자아의식이 낮아 소극적인’ 사회통합범주의 성향이 더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에게 맞는 별도의 맞춤형 선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음악영재성 발굴 및 개발이 목적이 아닌 사회통합범주를 위한 오케스트라 교육에서 그런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찌하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중장기적 안목에서 다양한 방법과 사례를 토대로 사회통합범주 음악영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연구자 개인도 노력해야 하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책은 양적 확대, 입시, 콩쿠르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아니라 이들의 “꿈과 끼”가 발산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기다리고 같이 연구하려는 노력과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3-2017). <http://gifted.kedi.re.kr/images/gifted/policy/report04.pdf> (최종검색일: 2014. 11. 29)
- 김성혜(2012).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김성혜, 이경진(2014). 사회적 배려대상 음악영재의 환경요인 특징 탐색. **영재교육연구**,

24(4), 629-655.

김영천(2012).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김은아, 정옥분, 정순화(2007). 아동의 내적 동기 및 자기효능감과 창의성의 관계: 성별과 연령을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38(2), 23-47.

원영실(2012). **공연예술 영재성 의미에 대한 심리학적 조명**. 서울: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원영실, 신명희 (2011). **음악(국악)영재성 선별을 위한 부모 및 교사 관찰정보지의 타당화**. 서울: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이경진(2013). 학습과학 관점에서 본 레오나르도 다빈치 학습의 융합인재교육(STEAM)에서의 함의. **교육과학연구**, 44(2), 191-216.

이미경, 강병직, 조주연, 홍소영 (2006). **예술영재교육대상자 선발모형 개발연구 (I)**. 서울: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이재호, 류지영, 진석언(2011). 미래사회 영재 판별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교육학회논문지**, 15(2), 307-317.

정덕호, 박선옥, 유효현, 박정주(2014). 과학영재를 둔 어머니들의 영재성에 대한 인식. **영재교육연구**, 24(4), 561-576.

Cre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Gagné, F. (2003). Transforming gifts into talents: the DMGT as a development theory. In Colangelo, N. & Davis, G. A. (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 (3rd Ed.) (pp. 60-74). Boston, Allyn: Bascon.

Miles.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Reis, S. M. & Callahan, C. M. (1989). My boyfriend, my girlfriend, or me: The dilemma of talented tennaged girls. *Journal of Secondary Gifted Education*, 7, 434-446.

Renzulli, J. (1978). What makes giftedness? reexamining a definition. *Phi Delta Kappan*, 60(3), 180-184.

Renzulli, J. (1999). What is this thing called giftedness, and how do we develop it? a twenty-five year perspective.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23(1), 3-54.

Stambaugh, T. (2007) Next steps: an impetus for future directions in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for low-income promising learners. In Van Tassel-Baska, J. & Stambaugh, T. (Eds.), *Overlooked gems: a national perspective on low-income promising learners* (pp. 83-88). Washington D. C.: National Association for Gifted Children.

Tannenbaum, A. J. (1983). *Gifted children: psychological and educational perspective*. New York: Macmillan.

Van Manen, M. (1997). Research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 pedagogy (2nd Ed.). London, Ontario: University of Ontario Press.
- Von Boxtel, H. W. & Mönks, F. J. (1992). General, social and academic self-concepts of gifted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 169-186.
- Wallace, B. (2000). Able and talented learners from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communities. In Stopper, M. J. (Ed.), *Meeting the social and emotional needs of gifted and talented children* (pp. 99-118). London: David Fulton Publication.
- Winner, E. (1996). *Gifted children: myths and realities*. New York: Basic Books.

= Abstract =

Exploring the Inherent Trait of Music Giftedness of the Disadvantaged Gifted in Music

Sunghye Kim

Korea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Gifted in Arts

The working concept of the disadvantaged gifted is meant by those who hardly can have a chance to develop one's own gifts because of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factor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nherent trait of the music giftedness, which is composed of musical ability, creativity, and task commitment. Grounded upon the phenomenal research, this study purposefully samples ten disadvantaged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arts gifted camp hosted by Korea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Gifted in Arts. Thus, it explores the inherent traits of the disadvantaged gifted by coding, segmenting, and analyzing the interview with ten disadvantaged, and the evaluation reports of the expert group. The inherent trait of music giftedness of the disadvantaged gifted is shown as this: the inherent trait of the disadvantaged gifted in music is closely interrelated with one's own concept of giftedness. Whereas they show the high motivation and task commitment, they are hardly observed to have the creativity in their musical activities and learning. Finally, this study give a proposition for the strategy to stimulate and improve the inherent trait of the disadvantaged gifted in music: the importance of parents education and parent screening, meta-cognitive skills, the leaning-based creativity education, and the significant role of intrapersonal catalyst.

Key Words: Disadvantaged gifted in music, Qualitative research, Phenomenal research, Inherent trait of music giftedness

| |
|------------------------|
| 1차 원고접수: 2014년 11월 27일 |
| 수정원고접수: 2014년 12월 26일 |
| 최종게재결정: 2014년 12월 26일 |